**HI-ARC**

**2020-2 HI-ARC 자율 스터디 활동 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스터디명 | BOOK++ | | | | | |
| 학습일시 | 2020.10.18 | 진행차수 | 4 | 학습시간/장소 | | 30분/카카오톡 |
| 참석자 | 권예빈(서명) | 이주현(서명) | | | 박장성(서명) | |
| (서명) | (서명) | | | (서명) | |
| 구분 | 내용 | | | | | |
| 학습목표 | Hand over responsibility이 어떤 과정인지 알아본다.  Build 단계를 시작할 때 3가지의 기준 1 core, 2 small, 3 novel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잘 만든 scope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본다. | | | | | |
| 학습 방법  및  학습 내용 | chapter 10 Hand Over Responsibility - 팀을 믿어라!    팀에게 프로젝트가 배정되었다고 알리는 모습.  팀에게 프로젝트를 넘겨주고 나서, 일일히 간섭하지 않는다. 팀을 믿고 팀에 맡긴다. 이미 이전 파트에서 shape을 통해 boundaries를 설정했기 때문에 frame은 세워진 상태이다. 나머지 여백 부분은 팀이 재량으로 채우면 된다. cycle의 초반에는 프로젝트에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때 간섭하면 안된다. 처음에는 getting oriented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3일이 지나고도 그대로라면 물어본다. 일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이 발견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챕터의 주제이다.  chapter 11 Get One Piece Done - 하나라도 끝마치자!  project가 진행될수록 , 팀이 방향을 잡아갈수록 tasks들을 발견하게 될텐데, 첫주에 실체적이고 명백한 걸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팀이 실제로 한 게 없다고 insecure하게 느낄수있다. 프로젝트는 대부분 프론트엔드(디자이너)와 백엔드(프로그래머)로 나뉜다고 한다. 만약에 UI나 디자인이 좋아도 코드로 옮길 수 없다면, 코드로 옮길 수 있어도 디자인이 조악하면  무용지물이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잘 맞물려야 한다.    하나라도 끝마치기 위해 task를 고를 때에는 3가지 기준이 있다. 1. core - cycle의  초반에 해야되는 것들, 따라서 central하며, 2. small - 오래 걸리지 않으며 3. novel - 전에는 해보  지 않았던 것이다. 전에도 해봤던 것들은 초반에 끝마쳐봤자 의미가 없다.  chapter 12 - Map The Scopes - 문제를 쪼개라!  하나의 프로젝트를 부분부분(scopes)들로 쪼개서 하나씩 다루는 방법을 알아본다. 일단 task들을 분류할 때에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로 나눈다. Food Menu / Venue Setup/ Light / Sound. 구조로 나누면 각 파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잘 만든 scope에는 세가지 특징이 있는데 1. 프로젝트의 전반을 잘 알 수 있으며 2.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3. 새로운 tasks들이 등장해도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tasks들이 있지만 must-haves와 nice-to-haves를 구분해야 한다. 시간은 한정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project를 scopes들로 나눈 모습.    프로젝트가 끝났다. | | | | | |
| 활동 후기 | 예상을 했던 대로 Build파트에서는 팀이 project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Shape, Bet, Build 이 하나의 cycle이 아니라 각각의 cycle로 진행된다는 예상도 적중했다.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라는 직무들이 언급되어서 흥미로웠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 Appendix의 glossary에 책에 나온 용어들이 설명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다음주는 중간고사 기간이므로 스터디를 쉬기로 했다. 다다음주에 13~15챕터를 읽으면 shape up을 완독하게 된다. 다음 책은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s Made Easy\_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ic Puzzles 이라는 책인데, 스터디의 주 목적은 전공 관련 영어 문서에 익숙해지는 것에 있고, 알고리즘과 자료구조를 공부하는 것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다음 차수는shape up의 마지막 차수인 만큼 매듭을 잘 맺는 것을 목표로 세우며 4주차 스터디를 마쳤다. | | | | | |

**유의사항**

* 아래의 유의사항을 모두 지켜주세요. 어길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1차수 당 3매 이하로 작성해 주세요.
* 공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단순 나열은 지양해 주세요.
* 학습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기재해 주세요.
* 기타 공부한 자료는 별첨 자료로 첨부해 주세요.
* 매주 작성한 활동 보고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 주세요.

(2주 이상 미 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글자 포인트는 10pt로 작성해주세요.